

눈

지난밤에
눈이 소—복이 왔네
집웅이랑
길이랑 발이랑
치워한다고
덮어주는 니불인가봐

그러기에
치운겨울에만 나리지

一九三六 十二月、

눈

지난밤에
눈이 소—복이 왔네
지붕이랑
길이랑 발이랑
추워한다고
덮어주는 이불인가 봐

그러기에
추운 겨울에만 나리지

1936. 12.